

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안전진단본부 시설물점검119센터 김수용 센터장(042-479-8282) / 제공일: 2021. 7. 2 (총 2매)

농어촌공사 시설물점검119센터, 농업기반시설 무상점검으로 지자체 재난대응 앞장서

- 장마 앞두고 지자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긴급 시설물 점검 무상서비스
- 365일 상시 전문기술 지원하는 시설물점검119센터, 안전 파수꾼 역할 톡톡

-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김인식)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진 태풍 등 재난발생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사관리 시설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설물에 대해서도 긴급 시설물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.
- 공사는 2013년부터 「시설물점검119센터」를 운영하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시설물점검요청이 들어오면 전문 인력이 현장에 직접 출동해 점검하는 방식으로, 365일 상시전문기술을 지원해왔다.
- 특히,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임시조직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지난해부터는 부 단위 정규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기관의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.
- 지난해까지 「시설물점검119센터」는 지자체 시설을 포함한 총 813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, 평균 100여건 수준이던 점검요청은 올해 상반기에 평균 수준을 넘어선 160여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.
-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시설은 저수지로, 568개소를 점검했으며 이는 전체 점검의 70%에 이른다.

- 특히, 점점 요청증가는 지난해 54일 최장 장마를 기록하며, 중부지방의 34.7일이라는 강우일 수와 강우량(825.7mm)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- 공사는 올해 포용적 지속가능성장을 목표로 한 ESG경영 실천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안전중심경영원칙을 확립한 만큼, 상대적으로 재해방지 대책과 재난 대응체계가 미약한 지자체 시설에 대한 무상점검을 확대해 안전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.
- 김인식 사장은 “최근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필수적”이라며 “공사의 전문 기술을 활용한 공익적 기술지원서비스를 강화해,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